

한국청년방일단(제 4~5 단) 초빙사업의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대일이해촉진교류프로그램(JENESYS2023)’의 일환으로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에서 선발된 대학생 등을 초빙하여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지방재생사례(아오모리현)’라는 테마 아래 각종 시찰, 학교방문, 강의청강 등을 통하여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향후 한일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관계증진의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사전 프로그램(온라인 사전학습) 한국 대학생 등 67 명
초빙 프로그램 한국 대학생 등 67 명

【방문지】 사전 프로그램 도쿄도 67 명
초빙 프로그램 도쿄도, 아오모리현(青森県) 67 명

【일정】

■ 프로그램 :

12 월 27 일(수) 방일 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설명)

■ 초빙 프로그램 :

1 월 9 일(화)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입국, 도착 오리엔테이션

1 월 10 일(수) 【표경】외무성, 환영 중식회

【시찰】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시찰】이수현 씨 추도·현창비 시찰 등 신오쿠보 필드워크

1 월 11 일(목) 【학교방문·교류】(제 4 단) 호세이(法政) 대학, (제 5 단) 메지로(目白) 대학,
아오모리현으로 이동

1 월 12 일(금) 【표경·강의】아오모리현청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지방재생 활동에 대하여’

【시찰】아오모리현 관광물산관

【강의】‘지역×청년×기업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마을로’

1 월 13 일(토) 【강의】‘지역에서 아이들을 서로 지원하는 활동’

【시찰】도와다시 현대미술관, 도와다시 교육플라자, 시민교류플라자 ‘도와레’

【교류】홈스테이

1 월 14 일(일) 【교류】종일 홈스테이

1 월 15 일(월) 【교류】홈스테이 해산식

【학교방문·교류】아오모리주오가쿠인(青森中央学院) 대학

1 월 16 일(화) 【시찰】네부타의 집 와랏세, 성과보고회(방일 성과·귀국 후 활동계획발표)
도쿄도로 이동

1 월 17 일(수) 하네다 공항에서 출국

2. 기록사진

	
2024년 1월 10일 【강의】 ‘최근의 한일관계에 대하여’	2024년 1월 11일 【학교방문·교류】 호세이대학
	
2024년 1월 11일 【학교방문·교류】 메지로대학	2024년 1월 12일 【표경·강의】 아오모리현청 ‘지출산·고령화 대책과 지방재생 활동’
	
2024년 1월 12일 【강의】 ‘지역×청년×기업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마을로’	2024년 1월 13일 【강의】 ‘지역에서 아이들을 서로 지원하는 활동’
	
2024년 1월 15일 【교류】 홈스테이 해산식	2024년 1월 15일 【학교방문·교류】 아오모리주오가쿠인대학

3. 참가자 감상(발체)

◆ 한국 대학생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재생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과제이므로 일본의 사례를 보고 한국에 맞는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와 방법으로 지역재생에 힘쓰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재생을 위해서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방문에서는 국적을 초월하여 이러한 테마에 대하여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친구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기뻐했습니다.

◆ 한국 대학생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일본의 영빈관을 시찰하여 일본의 다양한 건축양식과 손님에 대한 오모테나시(환대)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들과의 교류에서는 평상시에 생각해 본 적 없는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나 지방재생에 대해서 접근하여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참가한 대학생 전원이 한국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에 유학할 예정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쿨재팬 리포터를 통해 만난 일본친구와는 오래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국 대학생

행정과 민간의 입장에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홈스테이가 있었던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직접 느끼고 배우는 일본에서의 생활이 아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부타의 전시는 장대하면서도 역동적인 그림과 이를 재현한 네부타의 작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오모리와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보는 것으로 장인의 기술이나 일본적인 예술의 세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4. 일본 측 감상(발체)

◆ 아오모리현청 관계자

눈이 많이 오는 추운 날씨에 한국에서 많은 대학생이 아오모리현까지 와 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오모리현에서 실시한 강의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지방재생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에서는 참가한 학생 여러분이 진지하게 강의를 경청해 주시고 강사에게 질문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일본과 한국의 가교가 되어 더욱더 교류가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홈스테이 호스트 가정

한국의 청년들과 만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모두 예의가 바르고 상냥하게 지내 주었습니다. 특히 고령자를 대하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친절하고 우리에게 자신감을 안겨줍니다. 또한 일본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 기뻐합니다. 공통의 화제가 생겼습니다.

◆ 호세이대학 학생

원래 대학의 유학제도를 통해 한국에 유학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접할 기회가 적어지고 있는 와중에 귀중한 교류에 참가하여 ‘한국사람들과 말과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체험을 하게 되어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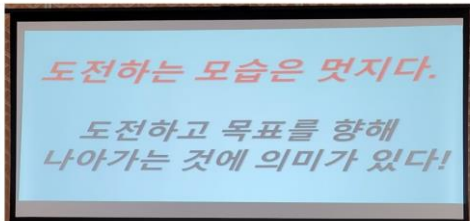
◆ 메지로대학 학생

아주 밝고 상냥한 학생들과 같은 그룹이 되어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에서는 결혼·출산에 대한 한국인 학생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신선하고 즐거웠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것은 양국 모두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뿐이었는데 토론회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 아오모리주오가쿠인대학 학생

이번에 그룹으로 나누어 토론했는데 제가 속한 그룹에서는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교육, 관광, 복지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 지방재생을 생각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다면 고령자가 생활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한 방안을 생각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했는데 지방재생의 새로운 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그룹이 되어서 좋았다고 들어서 기쁩니다.

5. 참가자의 대외발신(발체), 보도자료 등

 호텔에 있는 회의실 같은 공간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앞으로의 일정, 학생대표단 인사 등등 준비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고 이수현님의 추모영상도 보았다. 이수현님의 부모님께서도 현재까지도 일본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사업을 하신다고 한다. 아들의 뜻과 이름을 내건 장학금 사업을 지속하시는 것이 무척 대단하다고 느꼈다. 가족을 비롯한 이수현님을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순환적인 추모의 방식이길 바란다. 	 어린이식당 실행위원회 강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 도전하는 모습은 멋지고, 그만큼 도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목공, 추진력, 프라모델이라는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 어린이의 행복한 미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쓰는 멘토님의 모습을 보며 나도 지역 발전과 재생을 위해 나의 강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024년 1월 9일 (Blog) 고 이수현 씨의 추모영상을 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유학생들을 위해 아들의 뜻과 이름을 내건 장학금 사업을 현재까지 계속하시는 것에 무척 감명받았습니다.	2024년 1월 13일(Blog) 어린이식당 실행위원회 강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전하는 모습은 멋지다. 도전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강점을 살려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도 지역발전과 재생을 위해 자신의 강점을 찾아 나가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일본인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닌, 한일 대학생 교류회라는 것을 가지게 되어 나라를 향한 자부 심도 느꼈고 일본에 대한 애착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인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 일본에선 제트세대라고만 하는 것도 배웠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한국 가수들도 들었고 우리도 오타쿠인 거 다들 말 하고... 아아.. 일본인 친구들이 좋아요.... 그리고 한국친구들 일본친구들과 열심히 떠돌고 난 후,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 어음 	 사실 서울에 살면서 지방의 문제에는 크게 관 심이 없었는데, 지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렇게나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배워 서, 앞으로도 관련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2024 년 1 월 11 일 (blog) 단순히 일본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한 일대학생교류회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자부심 을 느꼈으며 일본에 대한 애착도 높아지는 계 기가 되었고 일본인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일 본에서는 Z 세대라고 불리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학생들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2024 년 11 월 13 일 (blog) 서울에 살아서 지방의 문제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지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앞으로도 관련 문제에는 꾸준한 관심을 가지 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青森 NEWS WEB 韓國の大学生 青森県で少子高齢化対策や地 方再生を学ぶ 01月15日 07時07分  海外の学生に日本への理解を深め てもらふ外務省のプログラムの一 環で、韓国の大学生が青森県を訪 れていて少子高齢化対策や地方再 生の事例について学んでいます。 外務省は日本への理解を深めて もらおうと年輪を通じて世界各国 から若者を招いていて、今年、青森 県には日本語などを専攻する韓国の学生63人が滞在しています。 この「韓国青年訪日団」の歓迎式が先週、青森市の「アスパム」で開かれました。 県観光国際戦略局の松尾英精次氏は「青森らしい冬の景色を楽しみ、多くの県民とふ れあって青森の魅力を韓国に広く伝えてほしい」とあいさつしました。	 津軽ステイ「一生の記憶」 訪日韓国学生、63人が報告会 五所川原 津軽地方の一般家庭に2 泊3日でホームステイした 韓国青年訪日団の大学生が 15日、五所川原市のホテル サンルート五所川原で報告 会を開いた。学生たちはさ まざまな日本文化を体験し たことを紹介し「青森の 魅力を感じ、いつか韓国に 来てみたい」と話した。訪 日団のホームステイは、 公益財団法人日本文化 交流基金の依頼に「おも てなし」をテーマに、津 軽地方の一般家庭に2泊 3日でホームステイした 韓国青年訪日団の大学生 が15日、五所川原市の ホテルサンルート五所 川原で報告会を開いた。 学生たちはさまざまな 日本文化を体験したこ とを紹介し「青森の魅 力を感じ、いつか韓国 にきてみたい」と話 した。訪日団のホーム ステイは、公益財団 法人日本文化交 流基金の依頼に 「おもてなし」を テーマに、津軽 地方の一般家庭 に2泊3日でホ ムステイした韓 国青年訪日団の 大学生が15日、 五所川原市の ホテルサンルー ト五所川原で報 告会を開いた。 ホストファミリー（前列）と一緒に登壇し、 ホームステイの思い出を報告する韓国の学生 （藤本耕一郎）
2024 년 1 월 15 일(NHK 아오모리) ‘한국의 대학생 아오모리현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지방재생을 배운다’ 저출산·고령화 대 책과 지방재생을 테마로 대학생 일행이 아오 모리현 내에서 필드워크, 고쇼가와라시(五所川 原市) 주변에서 홈스테이등을 예정하고 있다 고 소개.	2024 년 1 월 17 일(도오닛보·東奥日報) ‘쓰가루(津軽) 스테이 “평생가는 기억” 방일 한국학생, 63 명이 보고회’ 2박 3일의 홈스테 이 후에 실시된 보고회의 모습을 소개.

[illegible]